

## 영어 구동사의 한국어 번역 소고: 관용성과 난이도 중심으로

안 미 영  
(제주한라대)

###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와 영어 간 차이로 인해 영어 구동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어려워지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번역가 역량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는데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로 인한 번역 문제에 대한 논의는 번역학회를 중심으로 조금씩 논의되기는 했지만(박기성 2005; 이영옥 2000a; 이영옥 2001b), 그 당시 대부분 번역 학자들이 대학 강단에서 교육자로 활동했기에 번역 이론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했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가능한 문학번역(박경일 2002; 박진임 2004)도 활발하게 논의된 시기였다(최희섭 2007). 2010년대에 들어서 다른 시기와 대비하여 문화와 통번역 교육 관련 연구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고(이창수 2019), 2010년 후반부터 기계번역에 관련된 연구 논문(이노신, 이신재, 이재영 2016; 임순정 한미선 2014; 최동익 2013)이 뒤를 이었다. 반면, 영어와 한국어 간 차이를 번역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연구주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에 이 주제를 다시 다룰 필요가 생겼다.

한편, 최근 기계번역과 인간 번역의 상호 공존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면서, 기계번역가와 차별화되는 인간번역가의 언어적 역량의 중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했다(서보현 김순영 2018; 이성화 김세현 2018). 기계번역가는 속도, 데이터 등 양적인 전환을 가져왔다면 인간번역가는 상황적 맥락이나 인지적 항목에서 기계번역가가 하기 힘들거나 할 수 없는 부분에 역량을 키워야 할 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곧 기계번역이 발전할수록, 인간번역가의 어휘, 통사, 의미, 화행의 융합적 측면에서 언어 간 차이에 따른 번역 역량을 키워내야 할 필요성이 주목 받고 있기에, 이제는 언어 구조 간 차이에 따른 번역 문제를 기계번역이라는 측면에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예로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기계번역 오류 빈도가 높은 영역이 무엇이며 그 원인을 밝혀내야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인간번역가의 역량이 무엇인지 분석할 수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 논문에서는 영어 구동사를 선택하여 한국어로 번역하기에 어려운 이유를 ‘관용성(Warren 2005)’과 ‘난이도(Prator 1967)’라는 두 요소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번역 역량을 탐색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주제로 구동사를 선정한 이유는 우선, 영어와 한국어 간 구조적 차이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항목으로 판단되고, 또한 영어학계에서는 영어 구동사에 대한 연구(신명신 2008; 안수진 2013; 유태하 유원호 2010)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구동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아는 한 번역학계에서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영어 구동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잘못 번역되었다면 번역 오류 원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영어 구동사의 한국어 번역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번역가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간 차이와 구동사에 대한 문헌 연구를 하여 이 논문 목적의 당위성을 검증하며, 제3장 방법론에서는 유형별 빈도와 난이도 단계에 따라 구동사를 수집한 후, 제4장에서는 수집한 구동사를 기계 번역하여 관용성을 기준으로 오류 원인을 논의한 후 제5장에서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인간번역가가 함양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려고 한다.

## 2. 선행 연구

### 2.1 한국어·영어 간 차이에 관한 선행연구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로 인한 번역 문제는 2000년 초반부터 주로 양 언어의 구조 간 차이를 원인으로 잡고 영한번역의 방향을 제시했다. 예로서, 영어에서 수동구문으로 표현된 문장에 대한 대응 구문을 찾으려고 할 때, 한국어에서는 능동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반대로 한국어의 수동구문은 같은 언어 상황에서 영어에서는 능동구문으로 표현되어야 할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영옥 2000a). 또한, 한국어와 영어 간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는 항목이 영어의 다양한 무생물 명사를 사용한 주어 구문으로 제시하고, 한국어와 달리 영어에는 무생물 주어를 자연스럽게 하는 타동사들이 다양하게 발달하여 있고, 이런 영어 타동사와 의미구조가 일치하는 단일 동사가 한국어에 없으므로 번역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영옥 2001b).

형태론적 측면에서 영어는 굴절어로서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를 이루지만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어휘형태소와 문법형태소가 결합하기 때문에 한 개 이상의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단어를 구성하므로 단어 대신 어절이라고 한다. 영어와 달리, 교착어에 속하는 한국어의 경우 단어와 단어 사이에 조사가 붙어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해주며, 또한 교착어에는 수의 개념, 형용사의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다고 지적했다(최윤영 2014).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어순이 언어 간 비교의 주요 기준이 된다.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영어는 SVO, SVC, SVOC 등 어순이 정해져 있고 단어의 순서가 곧 단어의 의미를 나타낸다(손병룡, 2001). 의미론적 측면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는 어휘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박영란(2018)은 영어-한국어 언어 쌍을 번역할 때 어려운 이유는 영어 속어나 속어를 한국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것도 있지만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는 번역 오류는 어휘의 중의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성(2004)은 영어와 한국어 간 차이를 수동구문과 어휘부에서의 행위성과의 연관성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영어와 한국의 의미 최소 쌍 동사들의 행위성을 검토해본 결과, 한국어 동사 행위 동사가 영어보다 기본 의미나 말뭉치 차

료에 있어 보다 높은 빈도의 행위성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어의 동사들은 행위성과 관련된 추가적 의미 구분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sup>1)</sup>, 그러기에 영한 번역과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동익(2013)은 영어 주어 명사(구)의 의미역<sup>2)</sup>과 한국어 주어 명사(구)의 의미역의 범위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영어의 무생물 주어 구문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부사적으로 이루어져야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한 기계 번역기가 무생물 주어 구문 번역 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사 분석이 의미역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타동사의 경우, 주어의 의미역과 목적어의 의미역이 정확하게 묘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한 두 언어 간의 대조분석에는 화행(speech act)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윤영(2014)은 ‘거절’ 화행에 관한 영어와 한국어 간에 전략 사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대체로 설명과 유감, 사과와 표현에서 양 언어의 화행적 기능이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예로서 영어권 원어민이 한국어 원어민보다 감사나 바람을 많이 사용하거나 “I wish I could” 등을 사용하여 좀 더 완곡하게 거절 표현하는 경향이 있고, 사과나 칭찬, 요청 등 다양한 표현에서 두 언어 간 화행에 전략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은숙(2008)은 번역가는 원문과 목표 언어에서 각각 사용하는 공손 어법의 차이를 인식하여 적절한 중개 조치를 통하여 ‘공손성의 등가(politeness equivalence)’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국(2012)은 한국어의 문화구조는 겸양을 우선하고 영어의 경우 명확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문장의 담화 구조뿐 아니라 통사 구조 안에서 그 차이가 드러나며 문화적 구조의 차이가 통사적 현상에도 잘 반영되었다고 분석했다. 영어는 ‘head-first’ 언어이기에 관계대명사가

- 1) 예로서, 의미 최소 쌍의 영어 동사 bear, endure, stand와 한국어 동사 ‘견디다’와 ‘참는다’라는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영어 동사의 행위성의 정도가 한국어 동사보다 행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즉 한국어의 경우 두 동사 모두 인격 주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영어의 세 동사는 생물 혹은 무생물 주어를 자유롭게 허용하였다. 따라서 두 언어의 유의적 동사군 비교를 통해 한국어보다 영어 동사군의 행위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함.
- 2) 의미역이란 문장의 구성 성분이 서술어와 관련되어 갖는 내재적인 관계를 뜻한다(최동익 2014: 281).

먼저 나오고, 한국어는 ‘head-last’ 언어이기에 주어 생략을 통해 우회적 방법으로 글쓴이의 의도와 문장에 혹은 담화의 주제를 모호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프라톨(Prator 1967)은 모국어와 목표어 두 언어 간의 난이도를 6단계로 나누어서 분류했다<sup>3)</sup>. 두 언어 간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서 ‘전이(transfer)’되는 0단계, 모국어의 두 개 이상의 항목이 한 항목으로 ‘융합(coalescence)’되는 1단계, 모국어에 존재하는 언어 항목이 목표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별 부족(under-differentiation)’ 2단계, 원천어에 있는 항목이 목표 언어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든지, 다른 분포를 보여서 ‘재해석(re-interpretation)’해야 하는 3단계, 모국어에는 없고 새로운 목표 언어 항목을 배워야 하는 4단계 ‘과잉구분(over-differentiation)’ 단계, 모국어의 한 언어 항목이 목표 언어에서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split)’되어 나타나는 6단계로 나누었다(최윤영 2014 재인용).

필자는 프라톨(1967)의 난이도 6단계를 참고로 하여, 영어 구동사의 한국어 번역에 비교적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전이-재해석-분리’ 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첫째, 단일 동사나 단일 의미 영역으로 전이될 수 있는 영어 구동사는 전이 단계로 분류하였다. 둘째, 구동사의 의미가 단일의미영역을 벗어나서 구(phrase)나 문장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경우는 재해석 단계로 분류하고, 셋째, 구동사 한 항목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 다의적(polysemous)이 되는 구동사는 분리단계로 구분하였다.

## 2.2 영어 구동사에 관한 선행연구

구동사(phrasal verb)는 ‘동사적으로 의미적으로 한 단위를 이루어 기능하는 어휘 동사와 불변사(particle)의 결합’이라고 정의된다(신명신 2008). 신명신(2008)은 구동사는 의미상으로 응집성(cohesiveness)과 관용성(idiomatcity)이 있으며, 응집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구동사의 의미는 축어적이 되고, 반면 관용성이 높아질수록 구동사의 의미는 다의적(polysemous)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구동사를 축어적 의미를 지닌 구동사와 관용적 의미를 지닌 구동사로 분류했다.

예로서, 축어적 의미가 있는 구동사들은 의미 예측이 비교적 쉽다(e.g. stand up, idle away). 반면, 동사와 불변사의 기본적 의미가 합쳐진 것이 아닌 관용적 의미가 있는 구동사(take up with=become friendly)의 경우 한 개 구동사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다의적(polysemous) 현상을 보여서 의미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구동사가 원어민 사이에 자주 쓰이면서도 한국인들 사이에는 구동사의 의미적, 통사적 화용적인 난이도로 인해 어려워하고 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영어교육에서 구동사를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런(Warren 2005)은 관용성(idiomatcity)을 ‘원어민 같은 표현’과 ‘언어 구조와 단어를 초월한’ 속성으로 정의하면서, 언어 구조와 어휘 중심의 기존 이론에 대한 돌파구로서 관용성의 의미를 제시했다. 관용어(idiom)를 ‘불투명한 불변량의 합성어(opaque invariant word combination)’로 정의하면서, 관용성과 관용어 연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관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문장이 관용성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관용어에 관한 연구는 언어학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됐지만 관용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는 영어 구동사를 소통의 측면으로 분석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과 영어를 링구아 프랑카로 사용하는 한국인들 사이에 큰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항목 중의 하나가 영어 구동사로 제시했다(Carte and Fox 2012). 영어 원어민에게는 게르만 계통의 동사(Germanic Verb)와 불변사의 결합인 구동사가 익숙하고 이해하기 쉽지만, 영어를 링구아 프랑카로 사용하는 외국인에게 영어 구동사보다는 라틴계 동사(Latin verb)가 더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우므로 양측 간 소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Carte and Fox 2012).

한국인에게 구동사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구동사는 어떤 불변사가 어떤 동사와 결합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고 동사와 불변사의 의미만 가지고 구동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고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안수진 2013). 따라서 한국 영어 학습자들 역시 구동사보다는 단일 동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구동사를 관용적 의미로만 기계적으로 암기하거나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유태하 유원호 2010). 한편, Carter and McCarthy(2006: 43)는 구동사를 가장 많이 형성하는 동사 17개를 언급했다(let, pick, work, make,

3) Prator, C(1967). Hierarchy of difficulty, Unpublished classroom l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ut, get, knock, run, give, take, go, pull, hold, look, turn, keep, come).

정리하면, 영어 구동사가 번역하기 어려운 이유는 구동사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준의 관용성으로 분석된다. 즉, 관용적인 표현으로 의미의 다의성이 높아지게 될수록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어렵게 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방법은 진행 방법은 우선, 선행 연구(신명신 2008; 안수진 2013)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상황에 사용되는 영어 구동사를 분석 대상 자료로 수집한후, COCA(Corpus of Contemporary American English)를 사용하여 유형별, 연도별 사용 빈도수를 대조 분석한다. 그 다음에 2장에서 논의한 대로 프라톨(Prator 1967)의 난이도 단계를 참고로 하여 구동사를 ‘전이-재해석-분리’의 세 단계로 분류하여 수집한다.

#### 3.1 영어 구동사 자료 수집 방법

선행연구(신명신 2008)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자료 수집은 구동사의 관용성의 수준에 따라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1) 응집성이 높아서 비교적 축어역 번역이 가능한 구동사 (2) SLT 의미를 재해석해야 하는 구동사와 (3) 관용성이 높고 다의적이라서 SLT 구조를 분리해서 번역해야 하는 구동사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영어 구동사 2000여 개가 수록된 사전<sup>4)</sup>을 사용하여 한국어와 영어 간 의미론적, 구문론적, 형태론적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최윤영 2014; 배소영 이은주 2018)를 바탕으로, 영어 구동사를 수집한 후, Prator(1967)을 참고로 하여, 수집된 영어 구동사들을 ‘전이-재해석-분리’ 단계로 분류하여 정리했다.

#### 3.2 COCA에서의 영어 구동사 연도별 빈도수

사용 빈도수가 많을수록 교육 자료로 유용할 것이라는 전제(최문선 2019)를 바탕으로, 영어 구동사가 원어민에게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

해 COCA를 사용하여 구동사를 대화, 신문, 학술지의 세 가지 유형별로 구분한 뒤, 이를 다시 상황별 연도별로 빈도 분포 자료를 수집하였다.

COCA는 대화, 소설, 잡지, 신문과 학술지 다섯 개 장르로 구분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화(Spoken)와 신문(Newspaper)과 학술지(Academic) 세 가지 장르를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최근 10년을 대상으로 2005-2009<sup>①</sup>, 2010-2014<sup>②</sup>, 2015-2019<sup>③</sup>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COCA 영어 구동사의 유형별 연도별 COCA 빈도수

영어 구동사/Total	유형 <sup>5)</sup>			연도		
	S	N	A	①	②	③
get back	6122	2721	372	2875	2984	2964
get by	391	436	107	294	283	243
get down	1289	447	89	646	567	491
get in	7298	3102	546	3160	3339	2903
get into	7241	2925	599	2664	2508	2550
get through	2666	1079	221	1051	1070	1066
give away	474	364	317	277	269	254
go down	3996	1449	300	1514	1593	1460
go for	2980	1729	315	1810	1674	1309
go off	1360	475	127	529	604	470
go over*	2028	615	176	828	785	681
go through	7616	2861	880	2632	2636	2800
go under	226	92	30	123	99	90
have on	1962	888	1305	989	943	874
kick in	360	358	60	272	323	214
kick off	276	382	22	178	232	315
knock off	75	126	6	81	71	51
make out	252	214	107	721	729	682
measure up	141	141	83	126	94	82
mop up	20	26	11	31	22	30
nail down	62	80	34	45	50	40
get back	6122	2721	372	2875	2984	2964
get across	293	107	333	88	99	105
get away	3402	1499	313	1757	1706	1563

4) Complete Phrasal Verb List from Learning English with easypacelearning.com

영어 구동사를 텍스트 유형과 연도별로 빈도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의미 영역이 다중적인 영어 구동사를 선별하여 COCA로 빈도수 추세를 살펴본 결과 영어 구동사의 텍스트 유형별로는 빈도수의 일관성을 보인다. 저자가 임의로 수집한 24개의 구동사를 COCA를 사용하여 세 가지 유형(대화, 신문, 학술지)에 따른 빈도를 찾아보니 총 88,143번 사용되었다. 그중에서 대화체(S)에 사용된 구동사의 수는 56,652로서 전체의 64%를 차지했으며, 신문기사(N)에 사용된 구동사는 24,766번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으며, 학술지(A)에 사용된 구동사는 6,725번으로 전체의 8%를 차지했다. 이를 통해 영어 구동사의 텍스트 유형 별 빈도의 추세를 가늠할 수 있다. 영어 구동사는 대화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뉴스 매체에서도 상당히 사용하는 반면 학술지에서 영어 구동사를 사용하는 빈도수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빈도 양상을 보면 2005년부터 2019년 동안 24개 구동사 사용 빈도는 총 73,674로 나타났고 그중에 ①기간(2005-2009)의 비중은 32%이며 ②(2010-2014) 시간의 비중은 35%이고 ③(2015-1029) 기간의 비중은 33%로서 연도별로는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3.3 난이도 단계별 영어 구동사 분류

본 연구는 영어 구동사가 한국어 구조와 다르므로 번역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대조분석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한다. 제2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관용적 다의성을 기준으로 구동사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수집했다. (1) 구동사 한 개 항목이 한국어에서도 한 항목으로 전이되는 구동사, (2) 구동사가 한국어에서는 다른 형태로 재해석 되는 구동사; (3) 구동사 한 개 항목이 한국어에서는 두 개 이상의 의미로 분리되는 다의적 구동사다. 다음 <표 2> 참조

<표 2> 난이도 단계별로 분류된 영어 구동사

전이 단계의 영어 구동사 <sup>6)</sup>	재해석 단계의 영어 구동사	분리단계의 영어 구동사 <sup>7)</sup>
buzz off (go away), call around (visit), care for (like), cast out (expel/reject), catch on(become popular), catch out (trick), go after, go along with(accompany), go before(precede), goof around, goof up(mess), have over (receive a guest), home in on(target), hook up(meet), jack in(quit), jump on(criticize), keel over (surrender), kick about (discuss), lap up(appreciate), lash into (criticize), lash out (react angrily), latch on (understand), lay on (organize), lay out (spend money), lash into (criticize), load down (burden), look into (research), look over (inspect), make after (chase), make away with (steal), monkey around (not be serious), nod off (sleep), nose out (find out),	buy off, cart off, cash in on, gloss over, go against, go below, grass up, grind away, grind down, grind out, grind up, grow out, gussy up, hack around, hack off, hammer into, hammer out, hand in, harp on, hit for, hold against, hold up, hole up, hook into, horse around, hunker down, jabber away, jam on, jaw away, jazz up, jerk around, jerk off, kiss off, kiss up to, knuckle down, knuckle under, land in, lark around, lash down, latch onto, lead on, level off, limber up, live it up, live off, load up, log into, lord it over, mark up, mete out, mill around, muddle along, muddle through, nip off, nip out, monkey around	call for (4), carry off (2), carry out, catch out, come out*(9), crack up(4), cut in (5), cut out(5), dig up(3), (3), draw down(3), drop off(3), dry up(4), dump on(3), feed on(3), fresh up(3), get about(4), get across(4), get along(6), get around(7), get at (4), get away(8), get back(11), get by(4), get down(8), get in(13), get into(7), get off(10), get on(8), get out(7), get over(6), get through(9), give away(9), give in(4), give off(4), give out(9), give up(9), give way(9), go down(11), go for(6), go into(5), go off(6), go out(7), go through(9), go under(3), have on(6), hold out*(4), kick in (4), knock off(4), knock up(3), lash out*(6), lock up (3), look upon (3), make out (6), mash up (3), measure up (5), mop up (4), nail down (4), pack in (4)

- 6) 전이 단계의 구동사 옆에 괄호 안에 있는 단어나 구는 이 구동사를 대체할 수 있는 동의어다.
- 7) 분리단계의 영어 구동사 뒤에 괄호 안에 표기된 숫자는 이 영어 구동사가 가진 중의적 의미의 숫자를 의미한다. 만일 숫자가 3이면 이 구동사는 세 가지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5) S는 Spoken의 약자로서 대화에서 사용된 구동사의 빈도를 나타내며 N은 Newspaper의 약자로서 신문기사에서 사용된 구동사의 빈도, A는 Academic의 약자로서 학술지에 사용된 구동사의 빈도를 나타낸다.

## 4. 논의

서론에서 밝혔듯이, 구동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 오류 빈도가 높다면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기계번역을 사용하여 오류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 4.1 전이 단계의 영어 구동사 번역

전이 단계에 속하는 영어 구동사를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구동사의 의미 영역을 비교적 수월하게 한국어의 의미 영역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 번역과정에서 영어구조를 한국어 구조에 맞추어 변형시킬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음 문장들이 전이 단계로 구분되는 영어 구동사들이다.

- ① The price put me off. v The price was a disincentive.
- ② Can you get on to him? v Can you contact him?
- ③ Are you getting on OK with the project? v Are you making progress with the project?
- ④ We've come up against a few problems. v We've encountered a few problems.
- ⑤ He went out of his way to help us. v He made a special effort to help us.

위의 예문을 보면 앞에 있는 영어 문장들은 모두 영어 구동사를 사용했지만, 뒤에 있는 문장들은 한국 번역가에게 친숙한 단어들로 대체했다. 문장별로 살펴보면, 'get on to'보다는 'contact'가, 'get on OK with'보다는 'make a progress'가, 'went out of his way'보다는 'made a special effort'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구동사들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번역가는 영어 구동사를 한국인에게 익숙한 라틴계 동사나 이해하기 쉬운 동사로 바꾸어쓰기 (paraphrase)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 나오는 영어 구동사는 단일 동사로 대체될 수 있는 구동사들이다.

이런 구동사들의 번역 오류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글 엔진을 사용하여 번역 결과물을 얻어서 영어 문장 밑에 기술하였다.

- ① knock off: "He knocked it off and sold it."  
MT(구글): "그는 그것을 두드리고 팔았다."
- ② let off: "The judge let him off with a fine."  
MT(구글): "판사는 그에게 벌금을 물었다."
- ③ light up: "They light up the streets at Christmas time."  
MT(구글): "그들은 크리스마스 시간에 거리를 밝힙니다."
- ④ look over: "They came to look over the house."  
MT(구글): "그들은 집을 보러왔다."
- ⑤ make out: "He made out that he was ill."  
MT(구글): "그는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구동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영어 단일 동사가 있고, 의미가 다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축어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 ① '그는 그것을 훔쳐서 팔았다(steal)' ② '판사가 그를 (징벌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not punish).' ③ '그들은 크리스마스에 거리를 (조명으로) 밝혔다(illuminate).' ④ '그들은 집을 (결함이 없는가) 점검하러 왔다(inspect).' ⑤ '그는 아픈 척했다(pretend).' 기계 번역 결과물을 보니 다섯 문장 중 두 문장에 번역 오류가 발견되었다(①⑤). 관용성이 낮고 축어역이 가능한 구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기계번역의 오류가 발견되었다.

### 4.2 재해석 단계의 영어 구동사 번역

영어 구동사의 한국어 번역에서 두 번째 어려운 단계는 재해석 단계이다. 이 단계의 영어 구동사의 기초의미영역은 전이 단계와 마찬가지로 한 개이지만 그 의미에 상응하는 단일 영어 동사 혹은 비슷한 기초의미영역을 지닌 영어 표현으로 대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buy off라는 구동사를 의미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일 영어 동사와 같은 단일의미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이 구동사

는 ‘pay someone to stop them causing trouble’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해주어야 한다. 영어 구동사가 통사적으로 변형되어 다른 영어 문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 문장들이 재해석 단계로 구분되는 영어 구동사들이다.

- ① buy off: “He bought the newspaper off by placing a lot of adverts.”
- ② cart off: “The thieves carted off ticket receipts.”
- ③ crash out: “Dave crashed out at a friend’s flat after the party.”
- ④ dip out: “The party was so dull I dipped out.”
- ⑤ do out of: “They did me out of getting the job.”
- ⑥ do up: “It took six months to do up the house.”
- ⑦ level off: “The pilot leveled off at 5,000 kilometers.”
- ⑧ let on: “I did not mean to let on about the event.”
- ⑨ lighten up: “I told them to lighten up, but they continued to complain.”
- ⑩ nerd out: “I had to nerd out when they asked about the plan.”
- ⑪ nut out: “The management and union had a meeting to nut things out.”
- ⑫ pal up: “We palled up when I started working with her.”
- ⑬ mark up: “They marked the goods up by 25%.”
- ⑭ monkey around: “The police officer told him not to monkey around and go home quietly.”

위에 기술한 14개의 구동사를 두 방법으로 번역하여 대조해 보았다. 우선, 필자가 영어 구동사의 의미를 재해석해서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를 위에 기술했다. 그다음에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여 같은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한 결과물을 밑에다 기술해서, 재해석 단계를 거친 문장과 기계가 번역한 문장의 대조 분석을 하려고 한다.

- ① “그는 (그 신문에) 광고를 많이 내서 신문이 (자신에게 해로운 보도를 해서) 말썽을 부리지 못하도록 매수했다(pay someone to stop them causing trouble).”  
MT(구글): “그는 많은 광고를 게재하여 신문을 샀다.”

- ② “도둑이 표 영수증을 갖고 가버렸다(take away something if stealing or without permission).”  
MT(구글): “도둑들은 표 영수증을 가져 왔습니다.”
- ③ “데이브는 파티 후 너무 피곤하고 취해서 친구 아파트에서 잤다(sleep at someone’s house because you are too tired, drunk to leave).”  
MT(구글): “파티가 끝난 후 Dave는 친구의 아파트에서 추락했습니다.”
- ④ “파티가 너무 지루해서 말도 없이 빠져나왔다 (leave a place without telling anybody).”  
MT(구글): “파티가 너무 무더졌어.”
- ⑤ “그들은 나를 속여서 내 취업 기회를 빼앗아갔다 (cheat somebody out of something that is rightfully theirs).”  
MT(구글): “그들은 나에게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 ⑥ “집을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6개월 걸렸다(repair & renovate).”  
MT(구글): “집을 짓는 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 ⑦ “기장이 5천 킬로미터 상공의 고도에서 수평을 유지했다(stabilize the altitude of an airplane).”  
MT(구글): “조종사는 5,000km로 수평을 off 다.”
- ⑧ “의도치 않게 그 행사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 버렸다(tell a secret).”  
MT(구글): “나는 그 행사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 ⑨ “가볍게 넘겨 버리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 불평했다 (be less serious).”  
MT(구글): “나는 그들에게 밝아지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 불평했다.”
- ⑩ “그들이 그 계획에 관해 물었을 때 나는 상세히 논의해야만 했다(discuss something in great detail).”  
MT(구글): “그들이 그 계획에 관해 물었을 때 나는 괴상하게 했다.”
- ⑪ “노사 간에 문제에 대한 해결안을 찾기 위해 회의를 했다(find an answer to a problem).”  
MT(구글):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 ⑫ “그와 함께 근무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become friends).”

MT(구글): "그녀와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전화를 끊었다."

⑬ "그들은 그 상품 가격을 25% 올렸다(increase the price of)."

MT(구글): "그들은 상품을 25% 인상했다."

⑭ "경찰관이 그에게 시끄럽게 장난치지 말고 조용히 집으로 가라고 일렀다(not be serious)."

MT(구글): "경찰은 그녀에게 원숭이를 쓰지 말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재해석 단계의 영어 구동사를 기계 번역할 경우 이들 구동사의 관용적 의미를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로서 'crash out'은 '너무 피곤하거나 취해서 다른 사람 집에서 자다'라는 의미를 파악하고, 'do up'은 '남이 응당히 가져야 할 것을 속여서 빼앗는다'라는 의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구글이 번역한 결과물을 보니 14개 중 1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번역 오류를 보인다. 기계번역은 구동사의 관용성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인간번역가의 재해석할 수 있는 번역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4.3. 분리단계의 영어 구동사 번역

영어 구동사의 한국어 번역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단계는 '분리'단계다. 재해석 단계에 있는 영어 구동사와 같이 영어 구동사에 상응하는 영어의 단일 동사나 기초의미영역이 비슷한 동사를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휘적 중의성이 가장 높은 구동사들이다. 예를 들면, go down은 11가지로 다의적으로 번역될 수 있고 get through는 9가지로 다르게 해석된다. 이렇게 영어 구동사의 다의적 특성이 가장 강한 분리단계 구동사의 경우, 번역의 난이도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본다. 첫 줄에는 다의적 관용성이 가장 높은 구동사들을 적었고 그다음에는 이 구동사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영어 문장들을 적었고 각 영어 문장 밑에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여 한국어로 번역했다.

① catch out

"The exam is designed to catch you out."

MT(구글): "시험은 당신을 잡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He caught me out when he checked my story with my previous employer."

MT(구글): "그는 내 이전 고용주와 내 이야기를 확인할 때 나를 사로잡았다."

"We were caught out with storm."

MT(구글): "우리는 폭풍에 걸렸다."

구동사 'catch out'이 세 가지로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다. 첫 번째 문장의 catch out은 'trick'이라는 의미를 알아야지만 '시험 문제가 꼬여서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겠구나'라는 추론을 하게 되고, 이 추론을 바탕으로 이 문장은 '시험 문제의 출제 경향'에 대한 상황임을 알게 된다. 두 번째 'catch out'이 '누군가가 거짓말하는 것을 발견하다(discover that someone is lying)'라는 의미를 알아야지만 이 문장을 '취업 인터뷰에서 거짓말이 탄로 났다'라는 상황을 추론할 수 있어서, '심사관이 내가 한 이야기를 전 상사와 확인해서 내 거짓말을 알아차렸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세 번째 catch out의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부딪힌다(meet an unexpected difficulties)'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야 "예기치 않게 폭풍을 만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글의 번역 결과를 보면, 모두 구동사의 관용성을 다른 의미 단위로 분리를 못 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② draw down:

The administration wants to draw down troop numbers soon.

MT(구글): "행정부는 곧 부대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The college wants to draw down extra funding for IT provision.

MT(구글): "대학은 IT 제공을 위한 추가 자금을 인출하려고합니다."

The gas reserves drew down because of the cold spell.

MT(구글): "최근의 냉기 주문으로 가스 매장량이 줄었습니다."

‘draw down’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 번째, “행정부는 군대 수를 줄이기를 원한다(reduce level)”로 해석되고, 두 번째 문장은 “대학은 IT 설비에 추가 자금 지원을 얻기를 원한다(get funding)”, 세 번째 문장은 “가스 매장량이 최근 한파로 고갈되었다(to deplete by consumption or heavy spending)”라고 해석된다. 이처럼 관용성이 높을수록 구동사의 다의성이 강해진다. 즉, 문맥에 따라 구동사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동사의 의미구조를 제대로 추론해 내야지만 한국어로 의미적 등가성을 구현할 수 있다. 기계번역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 문장을 제외하고 모두 번역 오류를 보인다.

③ come out\*

“The details of the scandal came out in the press and she had to resign.”

MT(구글): “뒷소문의 세부 사항은 언론에서 나왔고 그녀는 사임했다.”

“The band’s new CD is coming out in September.”

MT(구글): “밴드의 새 CD가 9월에 나옵니다.”

“She came out at university, and has been living with her partner.”

MT(구글): “그녀는 대학에 와서 파트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She came out in a nasty rash.”

MT(구글): 그녀는 심한 발진에 나왔다

“After three years, he came out of the coma.”

MT(구글): “3년 후, 그는 혼수상태에서 나왔습니다.”

“They have just come out with a new version.”

MT(구글): “그들은 새로운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She came out with the answer.”

MT(구글): “그녀는 답을 내놓았다.”

‘come out’의 경우 일곱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물의를 전모가 언론에 밝혀지자 그는 사퇴해야 했다(secret is revealed)”, “그 음악 밴드의 새 CD가 9월에 출시될 것이다(be published)”, “그는 대학교에서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파트너와 동거하고 있다(let other people know you are gay or lesbian)”, “그는 (얼굴에) 발진이 났다(have a rash or similar skin problem)”, “삼 년이 지나자 (그는) 의식

을 회복했다(recover consciousness)”, “새 버전을 만들어냈다(make something available)”, “그는 공개적으로 예상치 못한 대답을 했다(say something publicly and unexpectedly)”.

이렇게, 이 구동사 영어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려면, 영어 문장의 상황을 추론하고, 추론된 상황에 맞는 의미를 선택한 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영어 원문의 문법과 어휘 구조와 전혀 다른 변형이 이루어진다. 기계번역의 결과 세 번째 문장만 제외하고 대부분 의미는 제대로 전달했지만, 문맥이 어색하고 어휘가 자연스럽게 표현되지 않았다.

④ lash out\*:

“He lashed out and broke the man’s nose.”

MT(구글): “그는 남자의 코를 찢고 부러 뜨렸다.”

“He lashed out when things don’t go his way.”

MT(구글): “일이 끝나지 않을 때 그는 헛소리했다.”

“I lashed out in the sales last week.”

MT(구글): “지난주에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He lashed out at me when I laughed at him.”

MT(구글): “내가 그를 비웃을 때 그는 나를 비웃었다.”

‘lash out’의 의미는 네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하여 그 남자 코뼈를 부러뜨렸다 (suddenly become violent)”, 둘째, “일이 틀어지자 불끈 성을 내었다(react angrily).” “지난주 할인판매에 명품 사는데 돈을 엄청나게 썼다(spend a lot of money on luxury).”, 셋째, “(내가) 그를 비웃었더니 그는 나에게 고함을 쳤다(shout at them)”. 이처럼 각 영어 문장의 문맥에 따라 의미하는 행위성이 다양하게 달라진다. 한편, 기계 번역 결과를 보니 네 문장 모두 번역 오류를 보인다.

⑤ live off:

“They find it hard to live off the money they make.”

MT(구글): “그들은 그들이 돈을 버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He is 40 and still lives off his parents.”

MT(구글): “그는 40 세이며 여전히 부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live off’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번 돈을 쓰기도 힘들 정도였다(use money earned).” 두 번째는 “그는 나이가 40인데 아직도 부모에 (경제적으로) 기대어 살고 있다(be finally supported).” 기계번역은 구동사의 다의성을 파악 못 하고 있음을 본다.

⑥ nail down:

“They are having trouble nailing down the contract.”

MT(구글): “그들은 계약을 정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 can’t nail down what is wrong with the idea.”

MT(구글): “아이디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I can’t nail them down about when they will finish it.”

MT(구글): “그들이 언제 끝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I nailed the job down in the first interview.”

MT(구글): “저는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일을 중단했습니다.”

구동사 ‘nail down’은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 “그들은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succeed in getting)”, 둘째,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fully understand)”, 셋째, “나는 그들이 언제 그 일을 끝낼지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get full information from someone)”, 넷째, “나는 첫 번째 (취업) 인터뷰에서 성공해서 취업했다(achieve)”. 이처럼 영어 구동사는 문맥에 따라 그 기본 의미 단위가 쪼개져서 한국어로는 다른 의미구조로 변형된다. 기계번역 결과물을 보니 모두 번역 오류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의성 수준에 따라 구동사를 세 단계 난이도로 분류하여 이들 구동사 문장을 기계 번역해 본 결과, 가장 높은 다의성을 가진 분리단계의 구동사 문장이 가장 많은 오류 빈도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구동사의 관용적 다의성이 높아질수록 기계번역의 오류 빈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번역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인간번역가가 구동사의 다의적 관용성을 번역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구조와 다른 구동사 번역이 어려운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번역가 역량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동사의 다의적 관용성을 기준으로 구동사를 ‘전이-재해석-분리’의 난이도 단계로 분류한 후 단계별로 영어 구동사를 기계 번역한 결과물과 필자가 번역한 결과물을 대조분석하여 오류 원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영어 구동사 의미의 관용성이 높아질수록 구동사는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다의성이 강해지고, 다의적 관용성이 늘어날수록 기계번역의 오류 빈도는 더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기계 번역은 구동사의 축어적 혹은 다의적 의미를 전이, 재해석, 분리하는 번역 역량을 아직은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영어와 한국어 간 구조적, 어휘적, 의미적, 통사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항목이 구동사의 한국어 번역이기에, 인간번역가의 높은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번역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선, 인간번역가는 한국어 구조와 다른 구동사의 통사적, 의미적 구조에 대한 지식을 학습해야 한다. 구동사 번역이 어려운 이유는 관용성과 응집성의 축에서 의미 영역이 다양하게 변화해서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난이도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선, 전이 단계에 있는 구동사들은 영어의 단일 동사나 단일 의미 항목으로 대체될 수 있기에 번역가는 정확하게 축어역 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재해석 단계에 있는 영어 구동사는 관용어의 함축성을 다른 통사적 단위로 명시화시켜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번역가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의미적 맥락에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분리단계에 있는 영어 구동사는 관용성이 가장 높기에 의미의 다의성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한국어로 번역할때 이 구동사의 다의적 의미를 분리하여 한국어에 적합한 의미구조로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리하면, 구

동사 관용성의 수준에 따라 다의성이 강해지고 그로 인해 번역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므로, 번역가는 구동사에 상응하는 한국어 등가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동사의 축어적 혹은 다의적 의미를 전이, 재해석, 분리하는 번역 역량을 키워야 한다.

본 논문의 의미는 영어 구동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어려운 원인을 다의적 관용성 요소를 중심으로 난이도 단계별로 찾아보았고, 이에 따라 번역가가 키워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를 제안함으로써, 언어 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인강번역가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데 있다.

### 참고문헌

김영국 (2012) 「문장구조(어순)와 의식구조 사이의 상관관계: 한국어와 영어 비교연구」, 『영미연구』 제27집.

박경일 (2001) 「번역문화 바로 세우기와 영어교육의 근원적 개혁(1): 하버드에서 가르치지 않는 영어, 한국에서 가르치자」, 『번역학연구』 2(2): 7-36.

박기성 (2005) 「영어와 한국어의 수동구문과 어휘부에서의 행위성」, 『새한 영어영문학』 47(3): 183-205.

박영란 (2018) 「기계번역에서의 영어속담 분석」, 『통번역교육연구』 16(1): 131-150.

박진임 (2004) 「문학번역과 문화번역: 한국 문화작품의 영어번역에 나타나는 문제점 연구」, 『번역학연구』 5(1): 97-111.

서보현, 김순영 (2018)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 유형 고찰」, 『번역학연구』 19(1): 99-117.

손병룡 (2001) 「사고와 문화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영문학』 45(2): 131-151.

신명신 (2008) 「영어 다어 동사 교수의 문제와 제안」, 『영어학』 8(2): 179-206.

안수진 (2013) 「한국영어학습자들의 구동사, 전치사 동사 사용분석」, 『새한 영어영문학』 55(2): 207-232.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1): 229-248.

유태하, 유원호 (2010) 「말뭉치를 통한 한국 대학생의 전치사 동사 사용분석」,

*English Teaching* 65(4): 403-424.

이노신, 이신재, 이재영 (2016) 「통번역의 미래지평: 인공지능과 소통형 융합통번역 연구」, 『번역학연구』 17(2): 65-89.

이영옥 (2000a) 「한국어와 영어 간 구조의 차이에 따른 번역의 문제-수동구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 47-76.

이영옥 (2001b) 「무생물 주어 타동사 구문의 영한번역」, 『번역학연구』 2(1): 53-76.

이은숙 (2008)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한영 언어 비교연구:경어법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13: 127-154.

이창수 (2019) 「2010년대 국내 통번역학 연구 동향에 대한 키워드 분석」, 『번역학연구』 20(5): 107-129.

임순정, 한미선 (2014) 「구글번역의 사례연구: 번역 품질과 번역 단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5(1): 177-209.

최동익 (2013) 「무생물 주어 구문에 대한 영한 기계번역 오류분석」, 『언어학연구』 29: 279-299.

최윤영 (2014) 「영어와 한국어의 총체적 대조분석 연구」, 『신학과 목회』 41: 237-261.

최정인 (2015)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영어 동사구 종결성 문화적 차이에 따른 한영 언어 비교연구: 경어법을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13: 127-154.

최희섭 (2007) 「『번역학연구』의 현황과 국내 문헌인용 고찰」, 『번역학연구』 8(1): 323-345.

Carte, Penny and Fox Chris (2012) *Bridging the Culture Gap*, second edition, London & Philadelphia: Kogan Page.

Carter, Ronald and Michael McCarthy (2006)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rren, Beatrice Cecila (2005) 'A Model of Idiomaticity', *Nordic Journal of English Studies*, 4(1): 35-54.

[Abstract]

**Translating English Phrasal Verbs into Korean:  
Regarding Their Idiomaticity and Difficulty Hierarchy**

Ahn, Mi-young  
(Cheju Halla University)

Based on a contrastive study regarding English and Korean, this paper examines the phrasal verb construction to find how their different levels of idiomaticity affect such constructions' difficulty hierarchy, causing difficulty in translating these phrasal verbs into Korean. After collecting items from a list containing approximately 2,000 phrasal verbs, the study limited its analysis to a sample of these verbs that belongs to three different levels of difficulty hierarchies (Prator, 1967), depending on their idiomatic levels (Shin, 2008). First, some phrasal verbs that can be literally translated into Korean without transforming the SLT structure are grouped into the transfer stage of phrasal verbs. Second, other phrasal verbs whose idiomatic meanings must be reinterpreted into different meaning units to fit the Korean semantic structure are categorized as the reinterpretation stage. Third, the remaining phrasal verbs, whose highest level of idiomaticity requires the highest level of translators' interventions because they need a transformation of their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 of SLT for use in Korean, are classified as the split stage. This study found that the more idiomatic the phrasal verbs become, the more polysemous they become, making it more difficult to translate them into Korean.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translators to develop competences to literally translate the first group; to reinterpret the idiomatic expressions of the second group; and to split the polysemous meanings into the relevant Korean semantic structure for the third group.

▶ Key Words: phrasal verbs, difficulty hierarchy, idiomaticity, English-to-Korean translation, translators' competence

▶ 주제어: 구동사, 난이도, 관용성, 영한번역, 번역가 역량

안미영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관광영어과 조교수

amy1216@chu.ac.kr

관심분야: 통번역, 번역교육, 영작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논문투고일: 2020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20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11일